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현대 패션에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의
추(醜)의 미학



濟州大學校 大學院

衣類學科

宣慧美

2007年 8月

현대 패션에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의 추(醜)의 미학

指導教授 張 愛 蘭

宣 慧 美

이 論文을 理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 年 08月

宣慧美의 理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①

委 員

①

委 員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7 年 08月

목 차

국문초록
표 목차
그림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4
II. 이론적 배경	7
1. 타투 메이크업의 개념	7
1) 타투(Tattoo)의 개념	7
(1) 타투의 어원과 유래	7
(2) 타투의 종류	8
(3) 타투의 기능과 역할	14
2) 타투 메이크업의 개념	17
2. 추의 미학 개념	23
1) 추의 개념	23
2) 칼 로젠크란츠(Karl Rosenkranz)의 추의 미학	27
(1) 몰형식성	28
(2) 부정확성	29
(3) 왜곡성	30
III. 현대 패션에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의 추의 미학	32
1. 무형식(無形式)의 미	32
2. 불완전(不完全)의 미	37
3. 이형(異形)의 미	43
IV. 결론	50
참고문헌	52
ABSTRACT	56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세기말부터 패션에 추(醜)이미지의 부각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타투에 대한 관점 변화 및 인식 전환의 계기를 메이크업을 통해서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러기위해 현대 패션에 표현된 메이크업에서 예술적 표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타투 메이크업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패션에 표현된 메이크업의 대표적인 추 이미지는 히피족, 펑크족에 이어 등장한 고스족의 메이크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스족의 메이크업은 타투를 이용하여 괴기스러운 이미지 표현을 추구하였고, 이에 현대 패션의 추 이미지 표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투의 미학적 측면에서의 추 이미지를 규명하기 위해 먼저 타투의 개념 및 표현기법, 의미 고찰을 바탕으로 타투 메이크업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타투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에서 물형식성, 부정확성, 왜곡성을 차용하여 코드화 한 후, 그것들을 바탕으로 타투 메이크업에 대한 미적특성을 해석하기 위해 무형식(無形式)의 미, 불완전(不完全)의 미, 이형(異形)의 미로 유추하였다.

이에 타투 메이크업의 무형식의 미는 좌우 비대칭적 표현이나 이질적 요소의 도입에 의한 중성적·양성적 표현, 부분적 확대·면의 무시를 통해 일상적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부자연스러움과 모순성을 표현하며, 위치 전위 및 색의 엉뚱한 배치를 통해 전위적이고 해학적으로 표현된 미적특성을 코드화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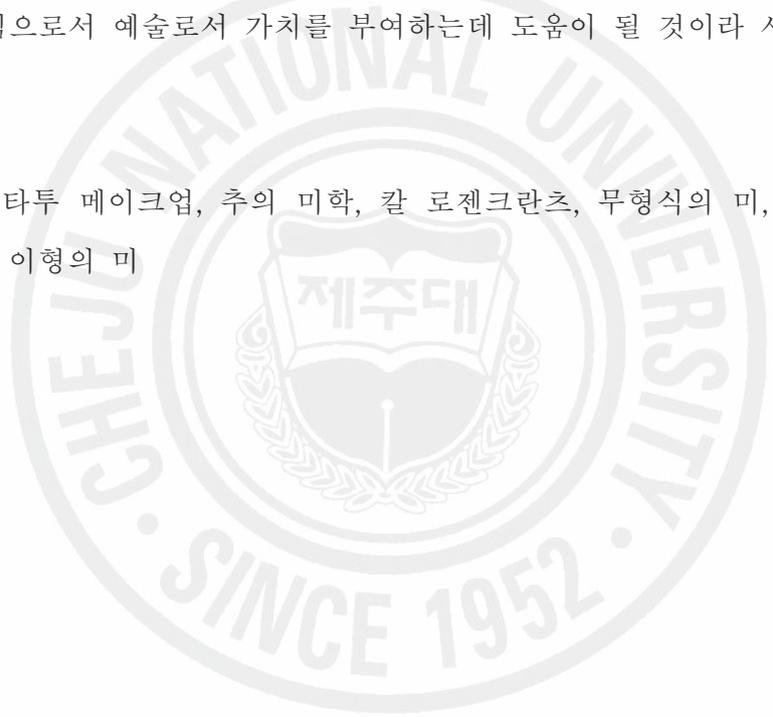
타투 메이크업의 불완전의 미는 색의 제한 및 축소·생략을 통해 임의적이고 모호한 추상적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며, 비구조적 형태와 색의 과장 또는 은폐를 통해 세기말적 경향, 미래지향적 경향으로 표현되어지고, 기하학적·추상적 패턴이라는 불완전한 추상적 형태를 통해 공허미와 미완성의 특성으로 표현되어진다. 또한 이질적 소재의 콜라쥬 기법으로서 모호성과 불완전성을 보여주며, 이질적 양식과 이미지의 혼용 및 차용을 통해 내부로부터의 해체, 예술적 불완전성의 미적특성으로 표현된 것을 코드화 한 것이다.

타투 메이크업의 이형의 미는 고스족의 메이크업에서 볼 수 있듯이 한색계열의

색채 사용으로 죽음과 악마적 분위기를 표현, 위치의 변형과 모방을 통해 해체주의와 탈중심화 경향 및 불건전성을 표현,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원색의 사용과 인위적 장식을 통해 질서의 파괴 및 타락, 퇴폐적 경향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구조·비례를 무시한 비정상적인 인체의 변형 방법을 통해 비인간적인 분위기를 표현함으로써 유희성·의외성·냉소적, 고통, 공포감, 혐오감, 죽음의 특성이 표현된 것을 코드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타투 메이크업은 개성화·다양화 시대에 메이크업이 독자적인 조형예술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메이크업의 표현기법으로써 무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또한 타투 자체를 예술의 한 장르로 정착시킴으로서 예술로서 가치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려 된다.

Key Words: 타투 메이크업, 추의 미학, 칼 로젠크란츠, 무형식의 미, 불완전의 미, 이형의 미



표목차

<표 1> 연구모형	6
<표 2> 인종별 타투형태 및 내적의미 분석	16
<표 3> 학자들을 중심으로 고찰한 추(醜)이론의 역사적 흐름	26
<표 4>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31
<표 5> 타투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의 미적 특성	49



그림목차

<그림 1> 빅토리아 에빈 저, 『신체장식』 p.50	12
<그림 2> Helen Reynolds, 『fashionable History of makeup & body decoration』 p.19	12
<그림 3> 스티브 길버트 저, 조현설 역, 『문신, 금지된 패션의 역사』 p.48	12
<그림 4> Helen Reynolds, 『fashionable History of makeup & body decoration』 p.11	12
<그림 5> Helen Reynolds, 『fashionable History of makeup & body decoration』 p.15	12
<그림 6> http://www.beegy.com	12
<그림 7> 1000 Tattoos. p.611	13
<그림 8> 1000 Tattoos. p.684	13
<그림 9> http://www.foxykorea.com	13
<그림 10> http://cafe.naver.com/bombheads.cafe	13
<그림 11> 1000 Tattoos. p.579	13
<그림 12> http://www.tazzo.co.kr	13
<그림 13> Chanel, 2007 Ready to wear, http://www.style.com	20
<그림 14> House of Jazz, 2003 F/W, http://www.samsungdesign.net	20
<그림 15> Impasse de la Defense, 2003 F/W, http://www.samsungdesign.net	20
<그림 16> Diesel, 2004 S/S, http://www.samsungdesign.net	20
<그림 17> Jill Stuart, 2004 S/S, http://www.samsungdesign.net	20
<그림 18> Alexander McQueen, 2004 S/S, http://www.samsungdesign.net	20
<그림 19> Blaak, 2003 F/W, http://www.samsungdesign.net	21
<그림 20> Krizia, 2006 S/S, http://www.style.com	21
<그림 21> Oswald Boateng, 2005 S/S http://www.samsungdesign.net	21
<그림 22> Girbaud, 2005 F/W, http://www.samsungdesign.net	21
<그림 23> Les Hommes, 2007 S/S, http://www.samsungdesign.net	21
<그림 24> Moschino, 2007 S/S, http://www.samsungdesign.net	21
<그림 25> Manish Arora, 2007 F/W, http://www.samsungdesign.net	22
<그림 26> Bernhard Wilhelm, 2003 F/W, http://www.samsungdesign.net	22

<그림 27> Boudicca, 2003 F/W, http://www.samsungdesign.net	22
<그림 28> Jean Paul Gaultier, 2007 오프쿠뛰르, http://www.style.com	22
<그림 29> Christian Dior, 2004 S/S, http://www.samsungdesign.net	22
<그림 30> Bernhard Wilhelm, 2003 F/W, http://www.samsungdesign.net	35
<그림 31> Boudicca, 2003 F/W, http://www.samsungdesign.net	35
<그림 32> Lanvin, 2004 S/S, http://www.samsungdesign.net	35
<그림 33> J.Maskrey, 2004 S/S, http://www.samsungdesign.net	35
<그림 34> Katarzyna Szczotarska, 2004 F/W, http://www.samsungdesign.net	35
<그림 35> Girbaud, 2005 F/W, http://www.samsungdesign.net	35
<그림 36> Girbaud, 2005 F/W, http://www.samsungdesign.net	36
<그림 37> Krizia, 2006 S/S, http://www.samsungdesign.net	36
<그림 38> Yohji Yamamoto, 2006 S/S, http://www.samsungdesign.net	36
<그림 39> Ashish, 2007 S/S, http://www.samsungdesign.net	36
<그림 40> Arkadius, 2004 S/S, http://www.samsungdesign.net	40
<그림 41> Gharani Strok, 2004 S/S, http://www.samsungdesign.net	40
<그림 42> Wendy and Jim, 2004 S/S, http://www.samsungdesign.net	40
<그림 43> J.Maskrey, 2004 S/S, http://www.samsungdesign.net	40
<그림 44> John Galliano, 2004 F/W, http://www.samsungdesign.net	40
<그림 45> Alexander McQueen, 2005 F/W, http://www.samsungdesign.net	40
<그림 46> Alexander McQueen, 2005 F/W, http://www.samsungdesign.net	41
<그림 47> 2005 F/W Vivienne Westwood http://www.samsungdesign.net	41
<그림 48> Zucca, 2005 F/W, http://www.samsungdesign.net	41
<그림 49> Oswald Boateng, 2005 S/S, http://www.samsungdesign.net	41
<그림 50> John Galliano, 2006 S/S, http://www.samsungdesign.net	41
<그림 51> Manish Arora, 2006 S/S, http://www.samsungdesign.net	41

<그림 52> Ashley Isham, 2006 F/W, http://www.samsungdesign.net	42
<그림 53> Ashley Isham, 2006 F/W, http://www.samsungdesign.net	42
<그림 54> D&G, 2007 S/S, http://www.samsungdesign.net	42
<그림 55> Manish Arora, 2007 F/W, http://www.samsungdesign.net	42
<그림 56> Alexander McQueen, 2002 F/W, http://www.samsungdesign.net	46
<그림 57> Christian Dior, 2003 F/W, http://www.samsungdesign.net	46
<그림 58> Rocco Barocco, 2004 S/S, http://www.samsungdesign.net	46
<그림 59> Zucca, 2004 S/S, http://www.samsungdesign.net	46
<그림 60> Zucca, 2004 S/S, http://www.samsungdesign.net	46
<그림 61> Pater Jensen, 2004 F/W, http://www.samsungdesign.net	46
<그림 62> Oswald Boateng, 2005 S/S, http://www.samsungdesign.net	47
<그림 63> John Richmond, 2005 F/W, http://www.samsungdesign.net	47
<그림 64> Undercover, 2006 S/S, http://www.samsungdesign.net	47
<그림 65> John Galliano, 2006 F/W, http://www.samsungdesign.net	47
<그림 66> John Galliano, 2006 F/W, http://www.samsungdesign.net	48
<그림 67> Les Hommes, 2007 S/S, http://www.samsungdesign.net	48
<그림 68> Les Hommes, 2007 S/S, http://www.samsungdesign.net	48
<그림 69> Manish Arora, 2007 F/W, http://www.samsungdesign.net	4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인들은 세기 말부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문화적 태동에 맞추어 보다 독특하고 개성적인 자기만의 미적 충족을 위한 방법으로 대중문화를 즐기고 있다. 한 예로, 현대인들은 자신의 개성이나 감각을 시각적으로 표출하려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독특한 스타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패션과 메이크업이다. 패션과 메이크업은 자신만의 이미지 연출을 위한 표현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메이크업은 얼굴 표면에 직접 표현되는 제한성으로 인해 표현방법이나 형태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20세기 이후 무제한적인 미(美)의 수용은 전형적인 미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개성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므로, 메이크업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미적 범주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되었고, 특히 추의 이미지는 현대 메이크업에 있어 중요한 미적 범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 메이크업에서 추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하위문화는 고스(Goths)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스족의 문화는 현대 문화에 많이 퍼져 있다(http://blog.naver.com/e_yoa). 영국 런던에서 1970년대 말 펑크족에 대한 반발로 탄생된 고스족은 18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중세 고딕문화에 근원을 두었다. 인간 소외, 죽음과 공포, 몽환과 초현실에 초점을 두며, 비사회적, 비정치적, 도피주의 성향의 고스족은 검정색 옷만을 입고, 해골, 뿔족한 첩탑 등이 연상되는 장신구, 타투, 피어싱, 검정색, 한색계열의 색채 사용, 창백한 얼굴표현으로 죽음과 악마적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그 중 타투는 고스족이 즐겨하던 대표적인 메이크업 방법으로 추 이미지를 전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타투는 기존의 전통적인 미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표현과 미적가치의 표현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서 타투는 원초적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피어싱(Piercing),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헤나(Henna)등과 함께 신체예술(Body Art)에 속한다(김광숙, 2001).

타투와 문신이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패션문화의 근원지인

파리, 뉴욕, 밀라노 등에서는 남성의 경우 상체가 타투로 치장된 것, 여성의 경우 민소매나 배꼽티 차림에 타투를 볼 수 있듯이 종전의 혐오스럽고 폭력적인 이미지의 타투가 패션으로 유입되면서 원시 사회로의 회귀를 꿈꾸는 현대인의 정서적 공허감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신체적 장식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해졌고 고급스러운 하이패션으로 전이되어 그 형태 또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21세기에 들어 패션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패션아이콘으로 타투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임정(2001), 문정은(2003), 홍지현(2003)은 타투의 미적 특성 및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윤정혜(1999), 이효진(1999), 김향수(2002)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타투와 바디페인팅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전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정신 병리학적 입장에서 문신과 자해행위와의 연관성, 교도소 수감자와 같은 범죄자와의 관계성을 다룬 논문들로(김종주, 1979; 오세원, 1983), 그 연구 결과, 타투 그 자체는 불건전성의 반영이라고 하였다. 1990년 이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패션코드로서의 타투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단계에 있다(이현주,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투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타투에 대한 관점 변화 및 인식 전환의 계기를 메이크업을 통해서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 현대 메이크업에서 예술적 표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타투 메이크업의 정의 정립 및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타투의 개념 및 표현기법,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투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의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 차용한 것이 바로 추의 미학이다.

본 연구에서 추의 미학을 차용한 이유는 세기말부터 기존의 문화와 사회, 정치, 관념들의 파괴와 윤리도덕의 타락, 패배주의, 현대인의 우울증, 소외감이 만연한 분위기인 퇴폐적 경향은 정상적이고 평범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변형되고 과장된 엽기적인 시각적 충격을 주는 추(醜)의 이미지도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이며, 타투 메이크업 역시 추 이미지로 표현 영역이 확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타투 메이크업을 반미적 패션과의 관계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석함으로써 미학적 범주에 내포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타투를 예술의 한 장르로 정착시킨다면 예술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사려 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서론을 포함하여 총 IV장으로 구성되었으며, I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 서술한다.

II장은 이론적 고찰로, 타투 메이크업의 개념정립을 위해, 먼저 타투의 개념 및 종류, 타투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본 후 타투 메이크업의 정의를 내린다. 타투 메이크업의 추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칼 로젠크란츠(Karl Rosenkranz)의 추의 미학을 차용하여 몰형식성, 부정확성, 왜곡성의 3가지 코드로 나누어 살펴본다. 몰형식성은 다시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의 하위 개념으로 구분하고, 왜곡성은 비속·협오·희화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타투메이크업과 추의 미학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한다.

IV장에서는 이상에서의 논의된 결과에서 추의 미학에서 유추한 분석틀인 무형식의 미, 불완전의 미, 이형의 미 등 분석틀을 중심으로 타투 메이크업을 실증적으로 분석·해석한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나누어 행한다.

첫째, 이론적 연구로 국내·외 단행본 및 선행 연구, 학위 논문 등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타투의 개념 및 미적 특성을 살펴본 후 타투 메이크업의 정의를 정립하고, 타투 메이크업의 미적 해석을 위해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을 유추·차용하여 코드화 한다.

둘째, 실증적 연구로 2000년 이후의 컬렉션에서 추 이미지로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을 선별하여 분석·해석한다. 이를 위해 2차적 자료인 패션전문 잡지 「Vogue Italy」, 「Collezioni Dona」, 「Gap」, 「Collection」 과 인터넷 패션 사이트를 활용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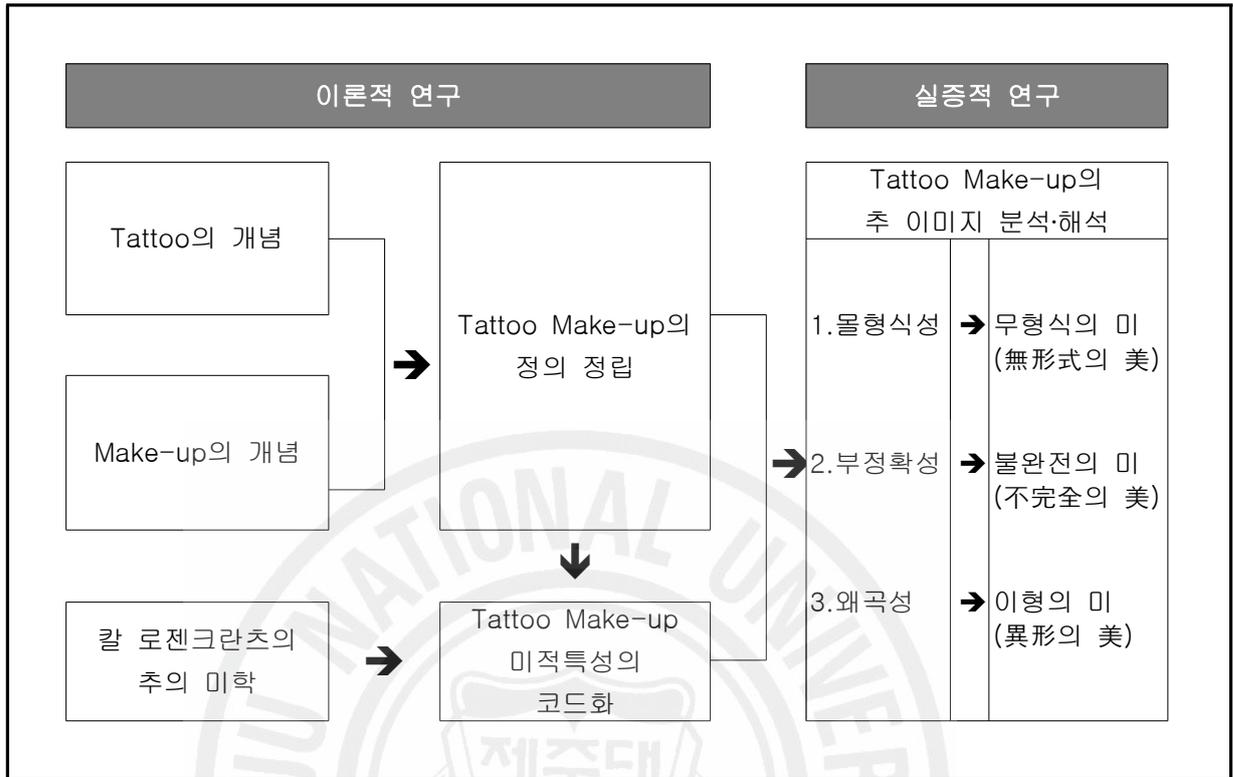
셋째, 본 연구의 제한점은 현대패션에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을 2000년대 이후의 하이패션에서 나타난 메이크업을 분석한 연구로서, 1990년대를 포함한 더 많은 시기의 패션현상을 분석하지 않고 연구의 시기를 최근 8년으로 제한하고, 4대 컬렉션의 하이 패션으로만 제한하였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는 대중 패션에 나타난 타투 메이크업의 일반적인 현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중적인 타투 메이크업 현상까지 포함시켜 분석 되어져

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패션에서 나타난 대중매체 등에서 볼 수 있는 타투
메이크업 및 타투룩(Tattoo Look) 등 전반적인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표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타투 메이크업의 개념

1) 타투(Tattoo)의 개념

(1) 타투의 어원과 유래

오늘날 타투와 문신이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그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문신에 해당하는 영어인 Tattoo는 남태평양 타히티 어원 Tattaw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 말은 폴리네시아어로 두드리거나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어근 Ta-에서 유래되었다(조현설, 2003).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의 1769년 타히티(Tahiti)의 탐험일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몸을 동물의 뼈로 만든 작은 도구들로 몸을 찍거나 뚫어 흠집을 내고 거기에 기름기가 있는 땅콩 등을 태운 연기를 이용해서 만든 진청색 또는 검정색 염료를 채운다. 원주민들에 의해 타타우(Tattaw)라는 이 방법은 피부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데 그들이 열 살이나 열두 살쯤 되었을 때 몸의 특별한 부분에 행해진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제임스 쿡이 ‘타타우’에서 유래된 ‘타투’라는 용어를 서구에 소개하기 전에 이미 서양에서도 피부에 상처를 내어 무언가를 새겨 넣는 행위의 명칭으로 ‘프릭(prick)’ 혹은 ‘마크(mark)’라는 용어가 존재하였다. 여기에서 ‘타타우’는 피부를 소재로 하는 민속예술(ethnic art)의 경향이 강하지만, ‘프릭’ 혹은 ‘마크’는 새기고자 하는 내용의 문화적 의미보다는 단지 날카로운 도구로 피부에 새기는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일컫을 뿐이었다(Govermar, A.B, 1984).

타투는 민속예술의 경향이 강하고, 타타우는 BC 1500년 전부터 폴리네시아 군도에서 발전해온 라피타(lapita)라는 도기(陶器)의 장식과 매우 유사한 모양이라고 한 것을 보면, 타타우와 라피타의 유사성이 바로 타투가 순수예술에서 비롯된 장식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신이란 피부에 상처를 만들어 색소 등의 물감을 넣어 글씨나 그림, 무늬를 새

긴 것을 말한다. 입묵(入墨)·자문(刺文)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미개민족은 성년식(成年式) 때 문신을 하였다. 이는 생물학적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사회학적인 존재, 즉 씨족이나 부족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표시에 해당하며, 할례(割禮)·발치(拔齒)·천이(穿耳) 등의 신체변공(身體變工)과 복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문신은 주술종교적인 의례, 그리고 장식으로서의 미학적(美學的)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계급을 나타내는 것과 액땀을 위한 것, 또 결혼이나 출산(出產) 때 호적(戶籍) 대신에 행한 경우도 있었다(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이러한 문신은 신체에 새긴 글자(字)로서 글자 자체로서의 의미를 전달하며 징벌적 기능으로서 형벌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에는 전과자의 팔뚝에 도둑 도(盜) 자를 새겼고, 일부 노비의 팔뚝과 얼굴에도 문신을 새김으로써 도망가는 것을 막기도 하였다. 고대 로마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겨 넣었다. 700년경 일본에서는 반란을 꾀한 자에게는 문신형을 선고하여, 한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까지 배척을 당하게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투와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고 물감을 부어 무언가를 새기는 시술의 형태에서 공통점을 보이지만, 피부에 새기는 문양의 형태나 기능에 있어서는 문신이 서양의 타투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신(文身)’은 ‘타투’에 비해 어원에서 신체에 형벌을 새겨서 표시하는 징벌적 기능이 직접적인 기원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신’이라는 용어가 패션으로서의 신체장식을 언급하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체장식을 패션의 한 분야로 발전시켜가기 위해서는 ‘타투’를 신체장식을 지칭하는 포괄적 패션용어로 서술하기로 한다(송남경, 박숙현, 2007).

(2) 타투의 종류

인간들은 과거부터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채색이나 타투 등으로 몸을 장식하였다. 다시 말해서 몸에 색칠하는 방법(Body Painting), 타투(Tattooing), 피부에 상처를 내는 방법, 신체의 일부를 파손시키거나 형태를 바꾸는 방법(deformation, mutilation) 등으로 신체를 장식하였다(강혜원, 2000). 피부색에 따라 피부색이 아주 짙은 종족에서는 상흔(傷痕, Scarring) 또는 난자(亂刺)의 방법을 이용하였고, 피부색이 옅은 종족은 색소(色素)를 사용하는 고유의 타투를 행하였다. 그러므로 타투의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타투는 상흔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살을 베어 흠집을 낸 다음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대로 두면 우묵한 직선의 흉터가 생기는데 이를 반흔타투(Scarification)라고 한다. 반흔타투는 널리 퍼져 있지 않지만, 피부색이 짙은 아프리카 등지의 종족들에게서 볼 수 있다. 즉, 아프리카의 수단인(人), 호텐토트인, 멜라네이사의 산타크루즈 섬의 원주민들이 얼굴과 가슴·등에 상흔을 낸 타투를 말한다. 반흔타투보다 널리 보급된 상흔타투는 <그림1>과 같은 장식적 또는 켈로이드 증상의 상흔이다. 중앙아메리카의 수모족이나 부리부리족은 불에 태운 송진을 상처에 발라 부풀어 오르게 하여 일종의 피부종양인 켈로이드를 만든 타투이다. 남부 멜라네시아의 뉴헤브리디스 제도에서는 별 모양의 켈로이드 형 타투를 하였다. 이런 방법은 서아프리카의 반투족(族)이나 나일강(江) 지역의 원주민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으며(조현설, 2003), 전통적인 문신 사회에서 주로 사용한 방법이었다. 이처럼 피부색이 짙은 종족이 반흔타투를 쓰는 이유는 검은 피부에 색소를 사용하는 타투를 했을 때 눈에 잘 띄는 색깔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색소를 침착시키거나 상처가 부풀어 오르게 함으로써 입체적인 표현을 하였다.

두 번째, 색소를 피하에 침착시키는 타투로, 피부색이 옅은 종족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사용하였다. <그림 2>, <그림 3>은 색소를 사용한 타투로서 지워지지 않도록 일정한 색소를 피부에 물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르케사스 제도는 타투로 유명하여 얼굴, 가슴, 배, 손, 다리 이외에도 입술, 눈꺼풀, 잇몸에 타투를 하였다. 무늬는 주로 폭이 넓은 직선이며 여성의 입술에는 석쇠모양의 문신을 하였다. 색채는 주로 흑색이며 청색, 녹색, 드물게 적색도 사용하였다. 또한 직접 붓을 가지고 무늬를 그리기도하며, 무늬를 새긴 목재 스탬프를 눌러 찍기도 하였다. 실제로 유럽의 신석기 시대나 금석병용기(金石竝用期)의 유물 중에서 타투 목적으로 사용된 듯 한 테라코타의 스탬프가 발견되었다.

세 번째, 바디 페인팅<그림4>과 같은 신체예술의 하나로 시술하던 일시적인 타투, 즉 헤나(Henna)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헤나는 염료로 사용되는 식물을 말하며 인도에서는 멘디(Mehndi)라고 한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파라오를 미라로 만들기 전에 파라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염색하는데 쓰였다고 한다. 연구가들은 Ani라는 미라가 된 유대의 율법학자(BC 1400)가 헤너를 사용해 염색한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고 중세 그림들에서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한 시바 여왕의 여정에서 헤나로 장식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인도의 여인들은 신분이나 종교적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이마를 붉게 물들이기도 하였다. 헤나는 염색과 같이 피부 표면을 물들이는 것으로, 이것은 피부에 상처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2주 정도 경과되면 자연스럽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림 5>, <그림 6>은 손바닥을 블랙헤나로 장식한 예이다. 이러한 일시적인 타투는 영구적인 타투에서 느끼는 고통과 영속성이 없고 자유로운 자신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새로운 문화로써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 번째, 블랙 앤 그레이(Black and Gray)는 <그림 7>과 같이 검정색만을 사용하여 섬세한 명암의 차이를 이용한 컬러링 스타일로 주로 정교한 초상이나 극사실적 디자인 등의 묘사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며, 무겁고 중후한 느낌을 가진다(<http://www.taegutatattoo.co.kr>).

다섯 번째, 트라이벌(Tribal)은 대상이 단순, 장식화한 스타일로 부족적, 주술적인 문양의 발전적 형태이며, 폴리네시아, 아메리칸 인디언 등의 타투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현대의 경우, 검정색 기하학적 넝쿨모양의 힘있고 아름다운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며(<http://www.taegutatattoo.co.kr>), <그림 8>은 넝쿨모양의 트라이벌이다.

여섯 째, 레인보우 타투는 <그림 9>와 같이 스킨글루와 글리터 파우더를 이용하여 피부 위에 문양을 7~10일 정도 유지 시켜주는 패션타투의 일종으로서 헤나 및 칼라링 타투, 크리스탈 타투 등과 혼합하여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다(<http://www.foxy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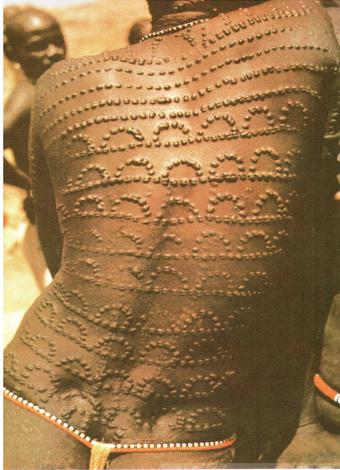
일곱 째, 뉴스쿨(New School)은 크로스오버 흐름에 속하는 대표적인 스타일로, 보통 선명한 외곽선 안에 파랑-주황, 보라-노랑 등의 보색에 인접한 대비가 분명한 색상을 큼직하게 사용하며 형태를 다소 과장시키거나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하는 등 개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림 10>은 외곽선 안에 연두-보라등의 대비로 표현된 뉴스쿨이다.

여덟 째, 올드스쿨(Old School)은 선명한 외곽선과 큼직한 외곽선이 뉴스쿨과 비슷하지만,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등의 기본 원색을 사용하는 것과 약간의 검정 명암에 의한 간결한 색의 처리는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디자인에 있어서도 독창적인 뉴스쿨과 달리 고정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소재는 일반적으로 섹시한 여자, 꽃, 댕, 십자가, 새, 곤충, 동물, 하트의 변형 등이며, 그 기원은 전쟁 중의 미국 군인

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11>은 일반적 문양인 장미를 원색으로 표현한 올드스쿨이다.

아홉 째, 크리스탈 타투는 작게 세공된 크리스탈을 타투를 새기 듯 원하는 부위에 붙여 다양한 모양과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타투이다.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고 다양한 무늬와 색상을 표현할 수 있으며, 목이나 등, 팔목, 발목, 배꼽 등에 붙여 섹시하고 화려하게 장식하며, 귀걸이로 이용하거나 네일, 아이 메이크업 등에 이용된다. <그림 12>는 발목과 발가락 위에 크리스탈 타투를 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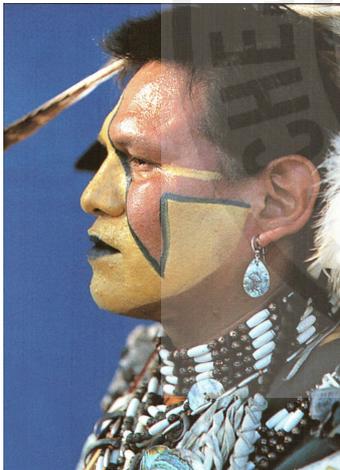
<그림 4>누바족 여인의 상흔 (신체장식 p.50)



<그림 5>마오리족 타투 (fashionable History of makeup & body decoration p.19)



<그림 6>마오리족 타투 (문신, 금지된 패션의 역사 p.48)



<그림 7> 바디페인팅 (fashionable History of makeup & body decoration p.11)



<그림 8> 손 헤나 (fashionable History of makeup & body decoration p.15)



<그림 6> 발 헤나 (:http://www.beegy.com)



<그림 7> 블랙 앤 그레이
(1000 Tattoos. p.611)



<그림 8> 트라이벌
(1000 Tattoos. p.684)



<그림 9> 레인보우 타투
(<http://www.foxykorea.com>)



<그림 10> 뉴스쿨
(<http://cafe.naver.com/bombheads.cafe>)



<그림 11> 올드스쿨
(1000 Tattoos. p.579)



<그림 12> 크리스탈 타투
(<http://www.tazzo.co.kr>)

(3) 타투의 기능과 역할

메이크업이 탈착이 가능한 의복이라면, 타투는 탈착이 불가능한 의복이라 할 수 있다.

신체장식의 주장자인 스타르(Starr)가 ‘지구상의 모든 종족 중에서 의복을 착용하지 않은 종족은 있으나 장식을 하지 않은 종족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장식이란 옷이나 장신구로 치장하기, 몸에 직접 그림을 그리기 등 어떤 방법으로든 신체를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표현을 의미한다(이인자, 1998). 즉, 원시인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하려는 욕구를 채색이나 타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장식 하였다. 이러한 장식행동은 이성적,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를 찾을 수 없지만 행위자의 문화적 관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장식행동에는 사회 문화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장식행동에는 비록 절대적인 힘이 내재되어 있지 않지만 신비로운 힘이 존재한다.

타투는 검은 피부 종족과 중국인들에게는 드물지만 그 외의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보편화되었고, 타투의 도안에는 질병이나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주술적 효과가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지위, 신분,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

이상과 같은 인종별 타투 형태 및 내적의미를 다음 <표2>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으며, 왜 다수의 종족들이 타투를 하였는지 목적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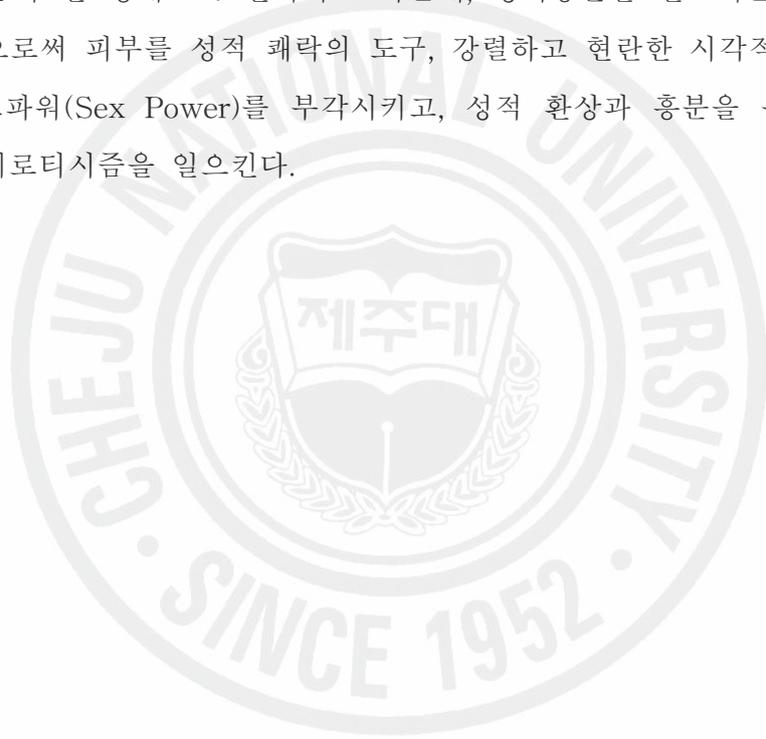
첫째,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신분의 상징이다. 사춘기에 신체적으로 발달하면 의식적인 타투를 거쳐 부족사회의 일원이자 다른 집단과의 구별, 성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함이었다.

둘째, 주술적 측면에서의 종족의 상징이나 표시로, 장식적인 면보다는 타투 장식을 통해 행운을 부르는 부적으로 사용되었다. 가족이나 부족을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집단과 구별하기 위해 자기들만의 대표하는 동물을 선택하여 몸에 새겨 그려 넣음으로써 특징적 표시를 하였다. 이는 반영구적인 신체장식으로 소속집단과 그 밖의 사람들을 구별하며 자신의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자기 자신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려는 예술적인 미의 표현으로 자기 신체를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즉, 성적 매력과 부, 지위,

힘을 나타내기 위해 타투를 행하며, 이것은 신체장식을 통해 계층의 분류가 다양한 사회에서 재산과 부를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같았다.

이상과 같은 목적으로 행하였던 타투는 현대에도 같은 상징적 의미로 행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오늘날 영구적인 신체장식은 수정하기가 어려운 반패션(Anti-Fashion)으로, 사회적 집단의 소속감을 표시해주기도 한다. 특히 색다른 컬러의 바디페인팅, 디자인, 장식들은 청소년 하위문화를 형성하는 트라이벌 그룹(Tribal Group)의 멤버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인식시켜 준다(Ted Polhemus, 1994). 또한 타투는 페티시즘의 한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성적흥분을 일으키는 은밀한 곳에 타투를 새김으로써 피부를 성적 쾌락의 도구, 강렬하고 현란한 시각적 효과를 통하여 강한 섹스파워(Sex Power)를 부각시키고, 성적 환상과 흥분을 유발하는 퇴폐적·도착적 에로티시즘을 일으킨다.



<표2> 인종별 타투형태 및 내적의미 분석

지역별	인종	타투의 형태	내적의미
태평양권	남태평양 마르케사스섬 원주민	푸른문신(손)	여성취사업무 부여(밀가루반죽)
		성숙시 완전한 형태	연륜과 부의 시사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	얼굴전체 곡선이나 직선, 당초무늬 장식	사회적 지위 (높은 지위의 신분)
		곡선위주 (나선문양, 소용돌이형)	불사
아시아권	일본의 아이누족	전염병이 돌때 모든 여성이 문신함	주술
	타이아 고산족	남성의 턱 문신, 배문신	전쟁능력 사냥할 때 규정된 무기사용가능 (자격과 시기가 정해져있음)
		얼굴 세가닥 방사선 문양(여자)	방직능력의 표상
	중국 리족	12,3세 얼굴문신 16,7세 출가하면 가슴문신 20세 이후 결혼 후 음부에 문신	통과의례- 종족의 표지 사회적 신분 획득 결혼할 자격
	한국의 조선시대	초범: 오른팔에 재범: 왼쪽팔에 도자문신	형벌의 징표 (창피 및 구별의 용도)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대륙	콩고의 바야카족	적색 채색(이마)	혼령의 복수예방
	아프리카 가나 북부 곤야족	사선 무늬의 상처 (생후 7일후 팔 위쪽에서 배꼽까지 상흔)	신생아사망 예방 사회구성원자격획득의 표시
	나제르의 후라니족	여인들의 안면 채색	악령과 병으로부터의 보호
	서부지역의 플라니족 여인	안면채색얼굴	악령과 병으로부터의 보호
	에스키모	턱선 줄무늬 문신(여자)	사회적 성숙, 여성보호
유럽	고대그리스인 에르투리아인	전쟁시 Body Painting	홍분의 목적 적색 : 기와 영웅심 아라베스크모양 : 적을 위협

2) 타투 메이크업의 개념

메이크업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원초적 미적 본능을 인체를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며,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발전하고 있다(강경화, 2000).

인간이 언제부터 화장을 시작하였는지를 규명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설(通說)에 의하면 학자들은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질병·불행·실패·죽음 등을 예방하고 자신을 해치는 모든 악마들을 쫓으려는 미신적 의도로서의 종교적인 필요성, 신체를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서 이집트의 여인이 눈을 질게 화장한 것은 태양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 향료의 사용은 곤충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Blanch Payne, 1965)이었다. 신분·계급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태고적부터 치장하였다는 기록에서 화장의 기원을 인류의 태동과 같이 시작하였을 것이라고 가정(假定)한다.

메이크업이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7세기 초 영국의 시인 리차드 크라슈(Richard Crashou)에 의해서이고, '메이크업'이라 하는 화장 형태는 20세기 미국 할리우드 전성기에 맥스 팩터(Max Factor)가 대중화시켰다. 메이크업(Beauty Makeup)은 한국어로 화장이며,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고 약점이나 추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위장하는 수단을 말한다. 메이크업(make-up)'은 '페인팅(painting)', '토일렛(toilet)', '드레싱(dressing)', 프랑스어로 '마꾸아주(maquillage)'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페인팅'은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전래된 짙은 화장을 가리키는 것에서 유래되었고, '토일렛'은 화장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치장을 의미하며, '마꾸아주'는 분장을 의미하는 연극 용어에서 유래되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메이크업은 그리스어 코스메티코스(Cosmetics)의 '잘 정리한다', '감싼다'라는 의미이다. 코스메티코스는 무질서, 혼돈의 의미인 카오스(Chaos)의 반대 개념으로 코스모스(Cosmos)에서 유래되었으며 '질서있는 체계', '조화'를 의미한다(春山行父, 1976).

메이크업은 인간의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방법이며,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 목적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수단으로 발전하여 왔다. 다시 말해서 메이크업은

신체보호, 종교적인 욕구충족, 사회적 지위 등의 표현에서 시작되어 현대에 와서는 외모를 통해 성, 연령, 문화, 지위, 사회적 역할, 개성, 교제, 이미지 등을 파악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어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오정희, 2005).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메이크업은 비언어 의사전달 수단의 하나로써 타인과 상호작용시, 그 사람의 외모나 얼굴모양, 표정, 대화의 내용이나 몸짓, 행위 이상으로 그 사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이처럼 외적 동기에 비중을 두는 것은 인간이 외부와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특질을 반영하기 때문이다(김덕륙, 1997).

그러므로 메이크업이란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으로서 최근 패션쇼에서 타투 메이크업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세기말의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타투를 재해석하고 타투의 의미, 종류, 표현방법 등을 복식에 응용하고 있음이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타투가 신체적인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였고 한 번 새기면 다시 지울 수 없는 영구적인 것으로만 여겨졌으나, 오늘날 즉흥적 감성 표현을 위한 일회용 타투나 화장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은 타투 자체가 지니고 있는 정신적인 의미와 심미적인 요소를 패션작품의 모티브로 사용하면서 인식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의 타투 메이크업 경향은 대부분 미용목적으로 한 눈썹 타투에서 알 수 있으며, 그 외의 영구적 혹은 반영구적인 타투보다는 일시적인 메이크업이나 비즈로 타투 이미지 효과를 표현하기도 하고, 패션타투 스티커, 판박이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바디페인팅으로 타투효과를 표현한 메이크업도 보여 지고 있다.

예를 들어 패션쇼에서 등장하고 있는 타투를 살펴보면,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와 같이 눈썹타투를 한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눈썹을 과장되게 그려 넣거나, <그림 16>, <그림 17>처럼 신체의 성적 욕구를 일으키는 부위에 타투를 하여 에로틱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 18>는 남성의 팔 한쪽에 타투를 함으로써 강인함을 표현하기도 하며,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는 얼굴과 바디에 색이 있는 안료를 페인팅하여 타투 효과를 응용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그림 22>, <그림 23>은 얼굴과 바디에 상흔타투 효과를 낸 타투 메이크업이며 <그림 24>는 바디에 넥타이 모양을 그려 넣은 착시효과를 통해 표현한 유희성을 나타낸 타투 메이크업이다. <그림 25>는 기하학·추상적 문양을 그려 넣어 세기말적 분위기를 표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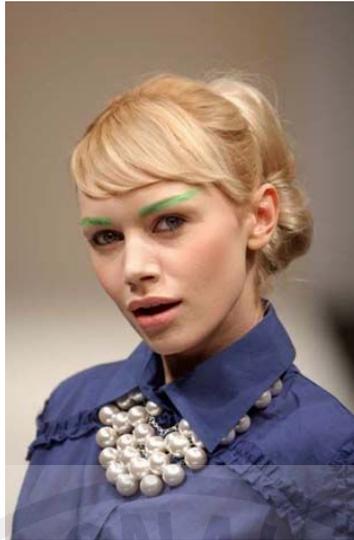
타투 메이크업이다. <그림26> 또한 기하학적인 무늬를 비대칭적으로 그려 넣음으로써 부자연스러움을 표현한 타투 메이크업이다. <그림 27>은 시스루 소재와 이질적인 소재인 비즈를 이용하여 타투 메이크업을 표현하였고, <그림 28>은 비즈를 이용해 눈물이 흘러내리는 듯 하게 표현한 타투 메이크업이며, <그림29>는 이질적인 소재인 금박 종이를 덧붙여 눈두덩이의 면적을 확대 시킨 메이크업이다.

이처럼 타투 메이크업의 기법들은 극적 효과와 충격 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메이크업으로 재탄생 되고 있다. 이는 신·구세기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퇴폐적 경향과 탐미적 경향으로 분석된다(장미숙, 양숙희,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투 메이크업을 타투의 외적형식 및 표현기법, 타투의 상징적 의미는 물론 타투의 내적의미를 응용하여 메이크업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타투 메이크업을 직접 몸에 새긴 타투, 상흔타투와 유사한 입체적인 효과를 표현하기 위한 크리스탈 타투, 이질적 소재인 비즈, 시스루 소재 등을 덧붙여 표현한 타투, 레인보우 타투, 타투 이미지를 바디페인팅으로 위치전위 및 극단적인 양식의 혼합, 과장, 변형된 표현, 헤너, 패션타투 스티커와 판박이 등으로 기하학·추상적 패턴을 표현한 것, 그리고 응용한 상형문자를 새겨 넣어 토속적·전통적 이미지를 표현한 타투효과 등을 응용하여 추 이미지의 퇴폐적 경향 및 탐미적 경향으로 표출함으로써 신체의 극적효과와 충격효과로 나타낸 메이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3> 인위적으로 눈썹 표현 2007 Ready to wear, Chanel



<그림 14> 인위적으로 눈썹 표현 2003 F/W House of Jaz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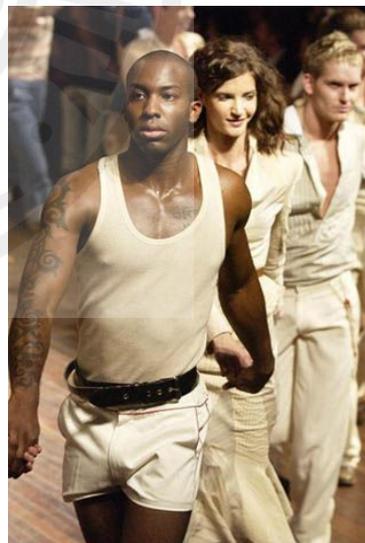
<그림 15> 인위적으로 눈썹 표현 2003 F/W Impasse de la Defense



<그림 16> 타투 메이크업 2004 S/S Diesel



<그림 17> 타투 메이크업 2004 S/S Jill Stuart



<그림 18> 타투 메이크업 2004 S/S Alexander McQueen



<그림 19> 안면 채색 2003 F/W Blaak



<그림 20> 바디 채색 2006 S/S Krizia



<그림 21> 안면 채색 2005 S/S Oswald Boateng



<그림 22> 타투 메이크업 2005 F/W Girbaud



<그림 23> 타투 메이크업 2007 S/S Les Hommes



<그림 24> 타투 메이크업 2007 S/S Moschino



<그림 25> 타투 메이크업
2007 F/W Manish Arora



<그림 26> 타투 메이크업
2003 F/W Bernhard Wilhelm



<그림 27> 망사를 이용한
타투 메이크업
2003 F/W Boudicca



<그림 28> 비즈를 사용한 타
투 메이크업
2007 오프꾸뛰르 Jean Paul
Gaultier



<그림 29> 금박을 이용한 타
투 메이크업
2004 S/S Christian Dior

2. 추의 미학 개념

1) 추의 개념

추(醜)는 미가 결핍된 상태 즉, 미적 관조를 방해하는 것으로 미에 반(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고대 플라톤(Platon)은 경멸적인 것과 사소한 모든 것, 즉 궁극적으로 무존재한 모든 것을 추로 보았으며,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쾌와 미의 결핍, 희극의 본질로 받아 들였다.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악이나 추는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전체 중에서 대상에 의해 미를 돋보이게 하는 하위 요소의 개념이라 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추가 형태의 결함과 질서의 결핍에서 온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예부흥기 이래로 추가 점차 예술의 세계로 들어옴으로서 미학에서도 추의 미적 의의를 용인하기 시작하였다(Theoder W. Adorno, 홍승용 역, 1984). 17, 8세기에 이르러 브뤼케(Bateux E. Burke)는 무의식 속의 환영(幻影) 가운데 획득한 존재적 추와 함께 추를 미의 정반대되는 것이 아닌 ‘숭고’라고 규정하였고, 미학적으로 취급하여 고통과 위협의 개념 아래 귀결시켰다. 셸링(F.W Schelling)은 악을 ‘원리의 적극적인 진도 또는 역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악의 적극성, 즉 ‘자유악’으로 주장하였고, ‘곡해’를 포함한 풍자적 희극적인 것으로 이끄는 데 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윤순향, 1985).

결국 이러한 미(美)와 추(醜)의 차이는 ‘주관적 취향’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칸트(Kant)의 명제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다시 니체를 통해 추의 형이상학적 관점이 깨어지고 거둬나게 되는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처럼 미(美)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만 이단시 되어왔던 여러 개념들에 관심을 갖게 된 경향은 근대 예술의 반고전주의적 경향과 시대정신 일반의 현실주의적 풍조로부터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추(醜)는 생물학적인 질병적 개념으로부터, 윤리학에서의 악의 개념으로부터, 혹은 법률학적인 비정당성의 개념으로부터, 종교에서 죄의 개념으로부터, 악의 개념으로부터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을 느끼게 하였다.

근대에 헤겔(G.W.F.Hegel)미학이 등장하면서 추개념의 절대적 의의가 다져지게 되었다. 헤겔(G.W.F.Hegel)의 변증론적 인식인 절대정신 속에서, 정(Thesis), 반(Anti-thesis), 합(Synthesis)으로 이어지는 예술정신이 지향되어 완전한 이념으로

승화되는 과정 속에서 추의 미학적 정립이 고찰되었다(G.W.F.Hegel, 1996). 희랍시대에 부정적이고 소극적 의미였던 ‘추(醜)’가 비로소 19세기 칼 로젠크란츠(Karl Rosenkrantz)에 의해 적극적인 미로 수용되면서부터 근대 미학의 완전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20세기 이르러 샬러(Schaller)에 의하면 추는 미가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의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기라고 하였다.

최근에는 립스(Lipps)의 미학에서도 추는 ‘소극적인 감정이입’의 대상이지만 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학을 수행하며, 미를 한층 더 인상 깊고 눈에 띄게 하는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미에서는 직접 그 실현을 위한 조건이 되며, 또한 미가 그것에 대항하고 자기를 주장함으로써 그 힘을 나타나게 한다는 점에서 추의 적극적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논장편집부, 1998).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것이 주는 쾌감은 언제나 자유로운 자기활동의 감정을 주지만, 추한 것이 주는 것은 자기충돌의 감정을 준다.

따라서 추에 관한 일반적 특징을 요약하면, 대체로 추는 미적 범주의 체계 중 순수미와는 정반대 개념으로서, 최대한도의 불쾌와 부조화의 요소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의 참여로 인해 대상에 대한 활기를 부여하고 전체적인 생동감을 주는 자극제의 역할을 하게 되며 고통과 함께 특수한 쾌감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미적 범주에서 추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종류의 숭고(崇高)는 몰형식성에서 추의 요인을 포함하고 비장(悲壯)은 종종 나쁜 것과 사악한 것을 함께 표현한다는 점에서, 또한 골계(滑稽)는 비눌악소(卑訥惡笑)한 것의 표현이나 희화에서 존재하는 점에서 추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3>은 추의 역사적 흐름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문예 부흥기 이후부터 추가 예술의 대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의 추 개념은 비체계적이고 양식화할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시대는 실제적 세계와 자신의 이상의 결합 속에서 미를 찾았으며 이를 토대로 모든 가치에 대한 전도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므로 미는 언제나 역사적으로 제약되었으며 가변적이었다. 그리고 각 민족마다 고유의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미 혹은 추에 관한 한 절대적이며 초민족적인 기준을 설명할 수는 없다.

현대 추의 미(aesthetic of ugliness)는 1920년 보그지에서 이미 ‘좋은 외관(good look)’의 표준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많은 찬미를 받는 여성들.....사실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다. 오늘날 국제적인 ‘미인들’을 보라. 당신은 결코 사랑스럽지 않고, 개성적이고, 독특한 얼굴과 모습을 볼 것이다. 얼굴들은 지난 세대에게는 추하다고 불릴 수 있지만 오늘날 보편적으로 그들의 스타일을 찬미한다. 현대 외모에 대한 기호(taste)들은 자연주의와 ‘추의 미’라고 칭하는 인공적인 과장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는 것 같다.”



<표3> 학자들을 중심으로 고찰한 추(醜)이론의 역사적 흐름

	시대	학자	내용	의미	공통점	
고대	11C 이전	Platon	경멸적인 것과 사소한 모든 것	무형식	-	
		Aristoteles	쾌와 미의 결핍, 희극의 본질	비미적		
중세	12C~ 17C	Augustinus	미를 돋보이게 하는 하위요소	상대적		
		Thomas Aquinas	형태와 질서의 결핍에서 비롯	무형태, 무질서		
근세	18C	Bateux E. Burke	추를 '숭고'로 규정 미학적으로 취급	숭고적		
		F.W.Schelling	'자유악'을 주장, 풍자적, 희극적 추의 필요성	풍자적		
근세	18C ~19C	Hegel, Fischer	正, 反, 습으로 이어지는 예술정신이 지향되어 완전한 이념으로 승화되는 과정에서 추 정립	부정적, 파괴적		최대한 불쾌·부 조화·반 미적 美의 역행
		Solger	추는 미와 반대되는 상호 배타적	배타적		
근대	19C	Karl Rosenkranz	존재 영역에 따라 자연, 정신, 예술의 추로 분류. 미적대상의 형식과 내용 및 이들의 관계인 표현에 따라 물형식, 부정확, 왜곡으로 나눔	물형식-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 부정확 왜곡 - 비속 혐오 희화		
현대	20C	Lipps	미를 위한 소극적 감정이입	불쾌감		
		Gadamer	미화 추는 상대적 개념으로 서열화 할 수 없으며, 주관적 가변적인 것으로 이해	상대적, 주관적		
		Hal Foster	이성에 대응하는 감성을 초미학	초미학		
		Adorno	미적 특질의 붕괴	반미적		
		木幡順三	이성에 대응하는 감성을 반미학이라 함 경계의 해체 및 체계화·동질성에서 이탈	탈경계 비체계적		

2) 칼 로젠크란츠(Karl Rosenkranz)의 추의 미학

헤겔파인 칼 로젠크란츠는 미학 사상 최초로 추를 미의 속성으로 파악하였고 미와 추의 상관관계를 풀어나갔다. 그는 변증론적인 정(正: Thesis), 반(反: Anti-Thesis), 합(合: Synthesis)속에서 미학 개념을 완성 시켰다. 즉, 정, 반, 합으로 이어지는 이념이 완전히 상승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추를 미학적으로 정립하였다.

로젠크란츠는 “우리는 악과 해악, 또한 추의 한 가운데 서 있다 (Wir stehen inmitten des Bösen und des Uebels, aber auch des Häßliche)(Karl Rosenkranz, 1996)”라고 언급하면서 추를 동시대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미학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자신의 추의 미학을 ‘미적 병리학 (ästhetische Pathologie)’이라 할 정도로 추는 부정적인 미로서 ‘정상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단지 미와의 결합에서만 예술은 추의 현존을 허락 한다(Karl Rosenkranz, 1996)”라고 서술한 것처럼 추가 미와 분리될 수 없으며 미가 존재하지 않으면 추도 존재할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 왜냐하면 추가 미의 부정으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는 선처럼 절대적인 것이고 추는 악처럼 단지 상대적인 것이다(Karl Rosenkranz, 1996). 이처럼 미와 추의 내적인 관계는 부정적 미로서의 추(das Häßliche als das Negativschöne)가 미에 대한 자신의 모순을 해체시켜 미와 통일되는 지양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정당화한다(Karl Rosenkranz, 1996). 다시 말해서 미와 추의 대립적 관계에서 추는 미의 형이상학으로 나아가는 수단이 된다. 미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추를 통해 더 아름다워지지는 않지만, 미의 옆에 추가 있을 경우 미를 즐기려는 충동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약간의 제한을 두었다.

이상의 실재적인 분석 가운데 추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첫째, 추의 미학은 부정적(否定的)인 이념이다. 둘째, 추의 미학은 이념을 위하여 자유성(自由性)을 갖는다. 셋째, 추의 미학은 이상을 위하여 총체성(總體性)을 갖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추가 전통적으로 미의 대립적인 가치이기는 하지만 미 개념과 불가분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부정적·적극적인 추가 자유롭고 총체적으로 이상화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로젠크란츠는 변증론적인 정, 반, 합을 통해 미학 개념을 완성시켰으며, 이를 통해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였다. 형이상학적 이상 실현과 절대적인 미의 추구를 위해 미의 대립적·부정적 의미로 추의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추의 원리는

미 자체의 이념 속에 존재하며, 미와 추의 조화를 통해 진실 된 이상성이 완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추는 부정적인 미(das Negative-schone)로 불완전한 미를 의미하지 않으며, 미의 부정이자 미와 동격의 대립 개념으로 보았다.

로젠크란츠는 저서 「System der Wissenschaft(1850)」에서 미 자체를 우월한 미·우연적인 미·절대적 미라 하였다. 추는 천박함·협오·풍자이며, 희극적인 것은 천진·익살·위트적 구조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존재 영역에 따라 추를 자연의 추(Naturhassliche)·정신의 추(Geisthassliche)·예술의 추(Kunsthassliche)로 분류하였으며, 미의 근본 원리는 정신의 자유성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추의 근본원리도 정신의 자유성의 부정과 파괴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미적 대상의 형식과 내용 및 이들의 관계인 표현 중 어느 것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이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몰형식성(Formlosigkeit)은 형상의 반대인 불일치, 형상의 반대이면서 구별적 배치를 뜻하는 불균형, 반대적 형상의 개별자인 부조화라는 세가지 개념으로 구성되며, 두 번째는 표현의 부정확성(Inkorrektheit), 세 번째 왜곡성(Defiguration)은 정신적 자유의 부정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으로, ‘비속(Das Gemeine)’, ‘협오(Das Widrige)’·‘희화(Das Komische)’로 구분된다.

(1) 몰형식성

몰형식성은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몰형식은 형식 자체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결말이 아닌 반대적인 결말을 갖게 되고, 이러한 불일치로 인하여 또 다른 미로서의 승화가 가능하다. 즉 몰형식은 모든 예술이 미로만 향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벗어나 반대 개념을 포함하는 다양함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기대된 결말 보다는 반대 결말을 가지게 되므로, 형식의 규정 존재를 위한 지양된 형식은 제거되어야 한다(안선영, 양숙희, 1995).

몰형식의 첫 번째 현상 방식은 불일치이다. 불일치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의견이나 생각 따위가 서로 어긋나서 꼭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형태와 형식의 불일치, 경계의 부재로 인해 모호함과 파동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곧 난잡성을 갖게되며, 형태의 난잡성은 곧 추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현상 방식은 불균형이다. 불균형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어느 편으로 치우쳐 고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외적으로는 통일성을 나타내지만 그 내부는 구별되지 않아 불균형적인 형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이한 것들의 조합 속에서 우연한 상호관련을 통해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균형에서 형식의 질적인 개별성을 부정하고 동일 척도를 훼손하면 추한 것이 되고, 이는 조형예술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불균형은 균형적인 부재에서 이미 난잡성이 있고 난잡성 속에서 한 형식이 다른 것을 억압 소멸케 한다. 불균형은 균형의 반대적인 대조이므로 균형이 부조화 속에서 우월한 것으로 보여 진다.

세 번째 현상방식은 부조화이다. 부조화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어울리지 않음을 의미한다. 로젠크란츠의 부조화의 의미는 추한 것이라도 동일한 구별이 있을 때는 미가 되므로 부조화가 되기 위해서는 종속적인 대칭과 규칙성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불규칙한 비례는 비균일 함으로 인해 시각적인 흥미를 갖게 되며, 부조화는 이러한 흥미를 일으킴으로서 인식된다.

부조화한 것은 아름답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흥미롭다고 명명한다. 우리는 모순이 내재해 있지 않은 것을 흥미롭다고 명명할 수 없다. 단순한 것, 가벼운 것, 투명한 것은 흥미롭지 않다;(...)그러나 혼란스러운 것, 모순으로 가득 찬 것, 따라서 부자연스러운 것, 범죄적인 것, 기이한 것, 광적인 것은 흥미롭다(Karl Rosenkranz, 1996).

균형을 이루는 미는 모순과 통일에서 다시 해체되어 미적 반대로 구분이 될 때까지 구별을 전개하고 이분화의 해체를 통해 비로소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모순들이 지양되어 결국 화해로 이르는 것에 반해, 부조화의 예술작품은 모순들이 지양되지 않기 때문에 추하게 나타난다.

(2) 부정확성

부정확성이란 바르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는 성질이란 뜻으로서, 로젠크란츠에 따르면 정확성을 가지고 예술적 형상이 물리적, 정신적 그리고 역사적·관습적 측면

에서 실현되고 있다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부정확성을 가진 추는 예술 양식들의 혼합으로 예술적 법칙성을 위반한다. 각각의 예술작품은 고귀하고 엄격한 양식(im hohen und strengen Stil), 중간 양식(im mittlem), 가볍고 천한 양식(im leichten und niedern Stil)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예술은 자신에게 적합한 하나의 미적 특성만을 지니며, 예술은 양식들의 어느 하나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술적 법칙성을 위배하는 부정확성은 예술적 불완전을 의미하며 왜곡과 더불어 부자유성에 근본되는 것이다.

(3) 왜곡성

왜곡이란 규칙적인 조화에서 벗어난 상태 또는 비례의 무시를 뜻하며, 비속·혐오·희화를 포함한다. 비속은 적대적인 특질이 과도하게 구현되었을 경우이고, 혐오는 무섭거나 소름끼치는 것에 대한 것이며, 희화는 예술 작품의 결함을 조롱·경멸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되는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왜곡의 기괴함은 필수적인 순서로서 각각의 구별적 단계를 갖고 있다. 미적인 것에 대하여 추한 것이 적극적인 전제를 가지는 것과 같이 탁월함 대신에 비속적인 것, 온화한 것 대신에 혐오가, 이상적인 것 대신에 희화가 나타난다. 왜곡, 비속한 것으로서 추한 것의 마지막 근거가 부자유에 놓여있다. 부자유는 특징적인 것을 개별성의 한 유익한 측면으로 자신을 이분화 시키고 자신의 가상 실재성과 화해된 것으로 존재하며 이의 모순성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웃음을 주고 절대적인 미개념으로 형성된다(윤순향, 198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의 미적 특성을 해석하기 위하여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적특성을 차용하여 무형식(無形式)의 미, 불완전(不完全)의 미, 이형(異形)의 미로 유추·코드화 하였다.<표 4>

<표 4>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개념		특징	
물형식성	불일치	불일치성= 형식내에서의 구별→물형식=형식의 적극적 반대→ 형태의 난잡성 = 추	→ 무형식의 미 (無形式의 美)
	불균형	균형의 부재→난잡성→억압소멸	
	부조화	종속적인 대칭과 규칙성의 배제 통일성의 무시	
부정확성		예술적 법칙성의 위배 = 예술적 불완전	→ 불완전의 미 (不完全의 美)
왜곡성	비속	정신의 저속화, 통속성, 과장성, 속물적, 퇴폐적	→ 이형의 미 (異形의 美)
	혐오	무섭거나 소름 끼치는 것 인간성 말살, 죽음, 공포, 고통의 연상	
	희화	예술작품의 결함 → 조롱, 경멸 이상과 모순, 유희성, 의외성, 냉소적	

III. 현대 패션에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의 추의 미학 분석

인간은 과거부터 메이크업을 통해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맞는 매력적인 얼굴을 창조해왔으므로, 메이크업을 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무대에서의 메이크업은 뷰티 메이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21세기 전후로 메이크업에는 패션과 함께 형태 파괴, 불완전성, 왜곡, 기형 등 실험적이고, 충격적인 추의 미가 본격적으로 표현되었을 뿐 아니라, 각 요소간의 모순적인 경향을 극도로 표현함으로써 탈형식적인 시도들이 나타났다(Henk Schiffmacher, Burkhard Riemschneider, 2001).

III장에서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의 미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칼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에서 유추·코드화한 무형식(無形式)의 미, 불완전(不完全)의 미, 이형(異形)의 미로 분석·해석하고자 한다. 최근 메이크업에 나타난 타투는 이목구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전형적인 양식을 파괴하고 좌우대칭이나 균형미, 통일감을 무시 한다는 점에서 무형식의 미, 비일상적인 패턴이나 장식을 표현하며, 타투 메이크업에서 동서양의 양식을 혼합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부정확성의 미, 비정상적인 신체 왜곡 및 변형, 모방을 한다는 점에서 이형의 미로 살펴 볼 수 있다.

1. 무형식(無形式)의 미

무형식이란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뜻으로, 형식을 배제하거나 무시함으로써 표현되어지는 미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무형식의 미는 로젠크란츠의 몰형식의 의미에서 차용·유추한 코드이다.

타투 메이크업의 무형식의 미는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중성적 이미지 표현이나, 대칭, 균형, 조화 등의 디자인 원리를 파괴하여 기본적인 형태를 무시하는 등 다양하게 표현된 것을 말한다. 또한 일반적인 사용범주에서 벗어난 엉뚱한 배치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부자연스럽게 표현된 것도 예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0>은 우 비대칭적 표현기법으로 이루어진 타투 메이크업으로, 가면을 쓴

것처럼 얼굴 한쪽 면을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바르고 눈과 입술의 윤곽을 강조하듯이 검정색으로 입술 한쪽 면 부분적으로 그려 넣어 면의 면적을 무시하여 표현하였다. 이는 일상적인 규칙 위반으로 형태가 배제되는 불일치성과 부자연스러움에 의한 무형식의 미가 표현된 것이다.

<그림 31>은 거 안면채색을 한 타투 메이크업으로, 악령과 병으로부터 보호의 의미를 이질적 소재인 비즈로 얼굴 전체에 본딩하여 상흔타투의 입체적 효과를냄으로써 형태의 난잡함이 표현된 무형식의 미가 표현된 것이다.

<그림 32>는 그물망 위에 에로틱한 레이스로 한쪽 얼굴을 부분적으로 은폐시킴으로써 얼굴색의 변화는 물론, 비대칭적인 표현기법으로 이루어진 타투 메이크업이다. 즉, 균형의 부재로 인한 난잡성이 보이며 이러한 난잡성은 다른 형식을 억압하는 무형식의 미로 표현된 것이다.

<그림 33>은 화려한 색상의 크리스탈과 색색의 형광 종이를 비대칭적으로 인체에 덧붙여 규칙성과 통일성을 무시하여 형태의 난잡성을 보여주는 무형식의 미를 보여준 타투 메이크업으로, 이는 일상적 규칙 위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34>는 눈매의 면적을 확대시킴으로써 면의 기본적인 영역이 무시되고 색의 사용범주도 파괴된 검정으로 페인팅 함으로써 무형식의 미가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으로, 이는 곧 해학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35>, <그림 36>은 상흔 타투 효과를 응용한 입체적 메이크업으로서 종족 표시처럼 이질적 소재를 기하학적인 선으로 한쪽 얼굴에만 덧붙여 좌우 비대칭을 표현한 타투 메이크업으로, 무형식적인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표현에는 형태의 모순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37>도 상흔 타투를 응용한 메이크업으로, 인체를 분리하듯이 파란라인으로 상체 깊숙이 채색하여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표현한 타투 메이크업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규칙에 위반하는 표현을 통해 불완전의 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곧 중성적·양성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38>은 얼굴에 통일성을 무시하여 흩뿌리듯이 비즈를 불규칙하게 비대칭적으로 붙여 넣어 불균형을 표현한 타투 메이크업이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한 형태의 난잡성으로 다른 형식을 억압 소멸케 한다. 이러한 표현에는 일상적 규칙의 위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39>는 색조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얼굴에 기하학적인 선으로서 윤곽선만

단순화 시킨 타투 메이크업으로, 음영처리를 한 듯한 표현과 눈썹의 위치를 전환하여 엉뚱한 배치를 함으로써 얼굴을 부분적으로 생략·강조하여 전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무형식의 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0> 2003 F/W Bernhard Wilhelm



<그림 31> 2003 F/W Boudicca



<그림 32> 2004 S/S Lanvin



<그림 33> 2004 S/S J.Maskrey



<그림 34> 2004 F/W Katarzyna Szczotarska



<그림 35> 2005 F/W Girbaud



<그림 36> 2005 F/W
Girbaud



<그림 37> 2006 S/S krizia



<그림 38> 2006 S/S Yohji
Yamamoto



<그림 39> 2007 S/S
Ashish

2. 불완전(不完全)의 미

불완전이란 완전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로, 불완전의 미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발현되는 미를 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불완전의 미는 로젠크란츠의 부정확성의 의미에서 차용·유추한 코드이다. 미적 범주로서 추의 부정확성은 예술적 불완전을 의미하므로 불완전의 미는 완성을 내부로부터 해체하는 공허미와 함께 미완성 혹은 추의 미를 추구한다.

타투 메이크업에 나타난 불완전의 미는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고려해서 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색을 극도로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반대로 색사용을 최대한 줄여 형태를 은폐, 생략함으로써 어떠한 성(性)도 찾아 볼 수 없는 모호하고 불완전한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또한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플라쥬 기법으로 표현하거나 비구조적인 형태를 의도적으로 취함으로써 불완전한 미가 표현된다.

<그림 40>은 완성도 높은 상형문자를 노출된 몸 전체에 채색하여 마치 원주민의 타투 혹은 민속의상을 입은 듯 한 원시적이며 이국적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차용한 타투 메이크업으로 불완전의 미가 표현된 것이다. 이는 높은 신분과 주술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41>, <그림 42>는 노출된 등과 팔 안쪽, 그리고 허리 부위에 모호하고 불완전한 추상적 패턴의 타투를 한 타투 메이크업으로 비구조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이는 비구조적 형태로서 내부로부터의 해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43>은 팔 양쪽에 상징적 기호와 같은 추상적인 타투를 배에서 음부 바로 위까지 하였고 얼굴 한쪽은 색색의 종이를 플라쥬 기법으로 불완전한 추상적인 형태를 표현한 타투 메이크업이다. 이는 미완성, 공허미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44>는 눈 주위를 낙서하듯이, 기하학적인 선으로 그려 넣음으로써 악령과 병으로부터의 보호의 의미가 내포된 타투 메이크업이다. 또한 에스닉한 이미지의 표현에서 불완전의 미가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술적 불완전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45>는 형태를 알 수 없는 모호하고 기하학적인 패턴을 그려 넣은 불완전한 형태로 미완성의 미가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이다. 이는 예술적 불완전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46>은 비구조적 형태의 추상적 패턴을 그려 넣어 불완전 형태를 표현한 타투 메이크업이다. 이는 세기말적 경향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47>은 점 형태를 불규칙하게 흩뿌리듯 얼굴 전체에 그린 메이크업에서 악령으로부터의 보호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피어싱을 한 입술은 갱의 이미지가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이다. 이는 세기말적 경향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48>은 눈 바로 아래에 비즈를 붙임으로서 또 하나의 눈처럼 보이게 하여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듯한 느낌과 흐르는 눈물처럼 보이는 이중 효과를 통하여 불완전의 미가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이다. 이는 영적인 힘을 얻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49>는 콩고의 바야카족의 토속적 양식을 모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것이다. 즉, 붉은색 안료를 이마에 한 페인팅은 혼령의 복수예방의 의미를 내포하며, 눈 주위를 어두운 브라운계열 색으로 채색하여 마치 안경을 쓴 듯 한 표현은 현대적 양식을 표현한 것이다. 다시 그 위로 전쟁능력을 의미하는 모호한 검은 선을 그려 넣음으로써 양식의 혼합으로 인한 불완전의 미가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이다. 이러한 표현에는 예술적 불완전성과 미완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50>은 행운을 상징하는 인도 여성의 빈디(Bindi)와 같은 문양을 이마에 붉은 점으로 표현하고 그 위에 현대적인 레드 텍스트를 함께 그려 넣음으로서 전통적 양식과 현대적 양식이 혼합된 불완전의 미가 표현된 것이다. 이는 예술적 불완전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51>은 동양적인 신비로움이 표현된 오리엔탈리즘적인 문양과 색감을 얼굴 전체에 채색한 타투 메이크업으로, 불완전의 미가 표현된 것이다. 양식의 혼용으로 인한 예술적 법칙성의 위배는 곧 예술적 불완전성의 의미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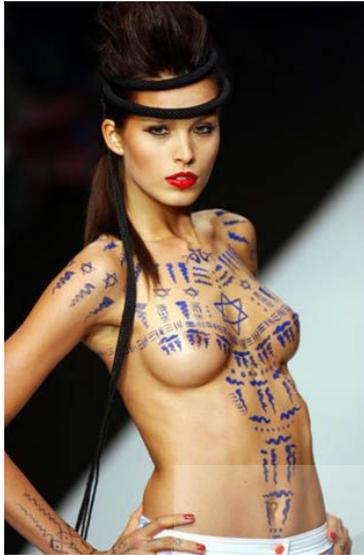
<그림 52>는 원시 마스크처럼 표현하듯이 눈 주위를 레드로 칠하고 다시 윤곽선을 블랙으로 극도로 과장되게 페인팅한 타투 메이크업이다. 이는 전투적 용맹스러움을 암시하는 토속신앙에서 나오는 환상적 존재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예술적 불완전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53>은 원시 부족의 타투 기법을 응용한 블랙과 레드의 대조로 이루어진 타투 메이크업이다. 이는 추상적인 채색으로 신비로운 주술 능력, 비장함, 전쟁능력 표현한 것이며, 또한 과거 양식의 혼용으로 예술적 불완전성과 세기말적인 경향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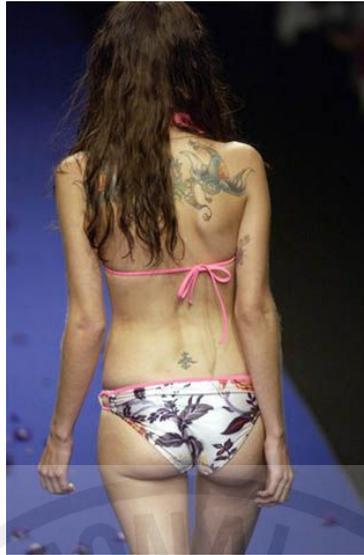
<그림 54>는 기하학적 기호와 상징적 기호인 화살표, 별 모양을 무의미하게 그려 넣음으로서 모호하고 불완전한 추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타투 메이크업으로, 불완전의 미가 표현된 것이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 경향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55>는 악령으로부터 보호하듯이 얼굴 전체에 기이할 정도로 색의 과장을 통해 화이트 페이스로 표현하였고, 눈 주위는 보라색 계열의 색상으로 기하학적인 패턴을 그려 넣은 타투 메이크업으로서, 비인간적이며 공상 영화에 나오는 듯한 이미지로써 미래지향적 경향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40> 2004 S/S
Arkadius



<그림 41> 2004 S/S
Gharani Strok



<그림 42> 2004 S/S
Wendy and Jim



<그림 43> 2004 S/S
J.Maskrey



<그림 44> 2004 F/W John
Galliano



<그림 45> 2005 F/W
Alexander McQu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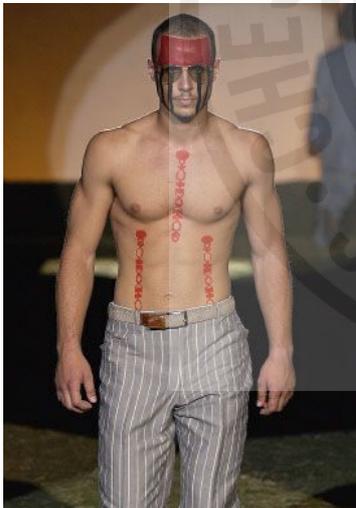
<그림 46> 2005 F/W
Alexander McQueen



<그림 47> 2005 F/W
Vivienne Westwood



<그림 48> 2005 F/W
Zucca



<그림 49> 2005 S/S
Oswald Boateng



<그림 50> 2006 S/S John
Galiano



<그림 51> 2006 S/S
Manish Arora



<그림 52> 2006 F/W
Ashley Isham



<그림 53> 2006 F/W
Ashley Isham



<그림 54> 2007 S/S D&G



<그림 55> 2007 F/W
Manish Arora

3. 이형(異形)의 미

본 연구에서의 이형의 미는 로젠크란츠의 왜곡의 의미에서 차용·유추한 코드이다. 이형의 미란 대상을 시각적인 영상으로 충실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에 따라 고의로 변형시키거나 과장하는 것으로 안정된 시각적 균형과 단조로운 형태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말하며 동적인 미적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극도로 과장된 표현은 얼굴의 구조나 비례를 무시하여 과감한 변형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왜곡이자 미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체의 변형(body modification)을 의미한다. 이형의 미는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미적 ‘반가치’를 표현하는데 비정상적인 외형, 생략된 신체 표현 등을 통해 환상적인 괴기감이나 혐오감을 표현한다.

타투 메이크업에서의 이형의 미는 기존의 정형적인 스타일을 파괴하여 이목구비 등 얼굴의 윤곽을 크게 고려하지 않거나 강조되지 않던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이목구비의 형태, 좌우 대칭구조를 파괴하는 안티감각은 물질문명에 대한 도전이며 인간성 말살에 대한 고발일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한다. 또한 색의 조화를 파괴하거나 색을 과장하여 획일화된 미에 대한 염증을 표현, 기형적인 색의 형태로 그로테스크하게 표현,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도록 불쾌하고 공격적으로 표현, 인간이 느끼는 황폐함을 공포스럽게 표현하는 것 등은 모두 왜곡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6>은 인디언족의 슬픔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검정색으로 아이홀(Eye-Hole)을 깊이감 있게 표현, 광택감이 도는 실버 페인팅을 얼굴 전체에 흘러내리듯이 표현한 타투 메이크업이다. 이는 기괴하고 섬뜩한 느낌, 인간성 말살, 죽음·악마적인 분위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57>는 중국 경극의 마스크를 패러디한 타투 메이크업으로, 아이브로우(Eyebrow)는 두껍게 표현하고, 아이홀은 블랙으로 그라데이션하여 아이존(Eyegone)을 확장시키고, 이마는 붉은 띠를 둘렀다. 관자에서부터 턱 아래까지 검은색 라인으로 띠를 둘러 반대되는 화이트 페이스 부분을 자연스럽게 마스크처럼 연출하였다. 입술은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처럼 작은 입술로 표현하기 위해 작고 도톰하게 그려 그 주위를 블랙 라인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 메이크업으로서 강한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 있으며 극도로 과장된 표현을 통하여

비인간성, 과장성, 속물성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58>은 성적 매력의 대상인 가슴을 은폐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마치 하트 모양으로 페인팅한 후 그 위를 See-through화 시킴으로써 은폐와 노출의 반가치 양면성이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이다. 이는 신체의 비정상적인 부분적 확대 변형함으로서 에로틱함을 표현하여, 여성의 성숙 의미를 내포시킨 것이다.

<그림 59>는 어린아이의 그림을 연상시키듯 장난스럽고 유아적인 형태로 표현한 타투 메이크업으로, 유머러스하게 눈을 단순화하여 왜곡시켜 마치 안경을 착용한 듯한 표현이다. 즉, 눈매를 일상 규칙의 위반으로 단순하게 강조하여 비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는 유희성, 의외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60>은 눈과 눈썹을 극도로 확대, 과장시켜 극단적인 효과를 표현한 타투 메이크업으로, 눈썹은 이질적인 소재인 비즈를 사용하여 왜곡된 얇은 아치형 눈썹을 길게 표현한 것이다.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처럼 입술을 과장되게 축소하여 비례가 무시된 표현에서 인체의 과장과 축소로 인한 비인간적이며 냉소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61>은 자유로운 유희 충동을 발산 시키듯이 눈의 형태를 부분적으로 확대·과장하여 단순화한 타투 메이크업으로, 아래 속눈썹을 세세하게 표현, 핑크빛 볼터치로 마치 만화인물처럼 표현된 것이다. 이는 의외성을 통한 유희성, 통속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62>는 전쟁능력을 표현한 타투 메이크업으로, 눈과 입술 아랫부분을 대조적 색상인 블랙과 레드로 눈 주위와 턱을 페인팅하여 마치 마스크를 한 것처럼 강한 표현을 하여 남성적이고 비장함이 표현된 것이다. 가슴에는 기하학적 타투로 냉소적 이미지, 갱의 이미지가 표현된 것이며, 여기에는 냉소적, 비인간적 분위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63>은 원시시대에 성숙한 여인에게만 특별한 장식이 허용된 것을 응용한 타투 메이크업으로, 눈썹에 과장된 크리스탈 타투에서 이형의 미가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에로틱하며 속물적인 특징이 표출됨을 알 수 있다.

<그림 64>는 원시시대의 사회적 신분 획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얼굴 양쪽에 윤곽선을 따라 조형적인 이물질을 부착하여 상흔타투의 입체효과를 나타낸 타투 메이크업으로, 구조를 무시한 과장된 표현으로써 비인간적인 분위기의 이형의

미가 표현된 것이다.

<그림 65>는 얼굴을 은폐한 것처럼 두건을 착용하고, 목 아래에서 가슴부위까지 추상적 블랙타투를 왜곡·강조하여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이다. 여기에는 죽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66>은 눈 주위를 레드로 페인팅하고 오른팔에는 추상적 타투를 왼쪽 팔에는 숫자를 그려 넣은 타투 메이크업으로, 죽음과 고통을 연상시키며 냉소적인 분위기가 표현된 것이다.

<그림 67>은 원시 부족의 가면을 흉내 내어 원숭이 얼굴을 희화한 기법으로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으로, 얼굴을 왜곡하여 그림으로써 원숭이의 안면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다. 이는 곧 원시적이며 희화적 유희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68>은 신체의 골격 구조인 늑골을 모방·단순화 하여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으로, 눈의 면적을 과장되게 확대 변형, 턱 윤곽선을 뚜렷이 잡아 골격구조를 표현, 입술은 축소시켜 표현된 것이다. 이는 마치 원시부족의 바디 페인팅처럼 노골적인 골격구조의 표현을 한 것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죽음, 해체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69>는 악령으로부터 보호 의미를 내포시키기 위해, 얼굴전체를 하얗게 표현하고, 코 주위를 제외 한 모든 부위에 불규칙적인 블랙 라인을 그려 넣은 타투 메이크업으로, 비정상적인 신체 변형을 표현함으로써 소름끼치는 듯한 느낌, 혐오감, 비인간적 분위기, 해체주의를 느끼게 하는 이형의 미가 표현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타투의 추의 미적 특성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그림 56> 2002 F/W Alexander McQueen



<그림 57> 2003 F/W Christian Dior



<그림 58> 2004 S/S Rocco Barocco.



<그림 59> 2004 S/S Zucca



<그림 60> 2004 F/W Zucca



<그림 61> 2004 F/W Pater Jensen



<그림 62> 2005 S/S
Oswald Boat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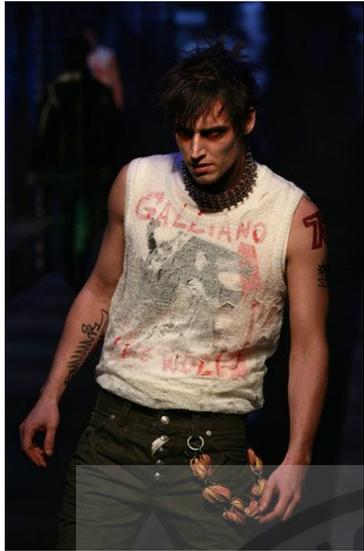
<그림 63> 2005 F/W John
Richmond



<그림 64> 2006 S/S
undercover



<그림 65> 2006 F/W John
Galliano



<그림 66> 2006 F/W John Galliano



<그림 67> 2007 S/S Les Hommes



<그림 68> 2007 S/S Les Hommes



<그림 69> 2007 F/W Manish Arora

<표 5> 타투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의 미적 특성

	외적형식	내적의미	표현기법
몰 형 식 성 → 무 형 식 의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의 일반적인 사용영역 무시 - 위치 전위 및 색의 엉뚱한 배치 · 여러 색의 극단적 혼합 - 색의 대조 및 산만한 느낌 · 디자인 원리의 파괴 · 부자연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위적 · 해학적 · 일상적 규칙 위반 · 난잡성 · 중성적 · 양성성 · 모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적 확대 · 면의 무시 · 위치 전환 · 색의 사용범주 파괴 · 조형과 색채의 조화 원리 파괴 · 좌우 비대칭적 표현 · 기하학적 선 · 색채 배색 · 지나친 축소 · 생략 · 강조 · 이질적 요소의 도입 · 다른 소재의 병치
부 정 확 성 → 불 완 전 의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질적 양식과 이미지를 혼용 및 차용 · 모호하고 불완전한 추상적 형태 · 불완전한 추상적인 형태 · 비구조적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로부터의 해체 · 공허미, 미완성 · 예술적 불완전성 · 세기말적 경향 · 미래지향적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의 과장 또는 은폐 · 기하학 · 추상적 패턴 · 상징적 기호 사용 · 이질적 소재의 콜라주 기법
왜 구 성 → 이 형 의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도로 과장된 표현 · 구조, 비례 무시한 인체의 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주의 · 탈중심화 · 비인간적인 분위기 · 유희성 · 의외성 · 냉소적 · 에로틱 · 불건전성 · 고통 · 죽음 · 공포성 · 혐오감 · 악마적 · 인간성 말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변형, 모방 · 비정상적인 신체의 변형 · 한색계열 색채 사용 · 단순화와 과장된 표현 · 외설, 강조, 모순 · 일상 규칙의 위반

IV. 결론

현대인들은 세기말부터 급변하는 문화적 태동에 맞추어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미적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패션과 메이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메이크업이 과거와 달리 얼굴 표면에만 제한되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개성 표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메이크업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미적 범위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되었다. 현대의 메이크업 중 특히 기존의 전통적 미의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주관적 개성표현과 미적가치의 표현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타투(Tattoo)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패션 아이콘으로 등장하고 있는 타투 메이크업의 미적 특성을 분석틀로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을 차용하였고 이를 무형식의 미, 불완전의 미, 이형의 미 등 3가지로 유추·코드화 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무형식의 미는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의 몰형식성에서 유추하여 코드화 한 것으로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의 특성을 보인다.

무형식의 미는 좌우 비대칭적인 표현이나 이질적 요소의 도입을 통해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중성적·양성적 표현, 부분적인 확대·면의 무시를 통한 일상적인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부자연스러움과 모순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색을 극단적으로 혼합하고, 조형과 색채의 조화원리를 파괴함으로써 난잡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위치의 전위 및 색의 엉뚱한 배치를 통해 전위적이고 해학적인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2. 불완전의 미는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의 부정확성에서 유추·코드화 한 것으로 예술적 불완전성의 특성을 보인다.

무형식의 미는 색의 제한 및 축소·생략을 통해 임의적이고 모호한 추상적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며, 비구조적 형태와 색의 과장 또는 은폐를 통해 세기말적 경향, 미래지향적 경향으로 표현되어지고, 기하학적·추상적 패턴이라는 불완전한 추상적 형태를 통해 공허미와 미완성의 특성으로 표현되어진다. 또한 이질적 소재의 콜라주 기법으로서 모호성과 불완전성을 보여주며, 이질적 양식과 이미지의 혼용 및 차용을 통해 내부로부터의 해체, 예술적 불완전성의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3. 이형의 미는 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의 왜곡성에서 유추하여 코드화 한 것으로 비속·혐오·희화의 특성을 보인다.

이형의 미는 한색계열의 색채 사용을 통해 죽음과 악마적 분위기를 나타내며, 위치의 변형과 모방을 통해 해체주의와 탈중심화 경향 및 불건전성을 표현하며,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원색의 사용과 인위적 장식을 통해 질서의 파괴 및 타락, 퇴폐적 경향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구조·비례를 무시한 비정상적인 인체의 변형 방법을 통해 비인간적인 분위기를 표현함으로써 유희성·의외성·냉소적, 고통, 공포감, 혐오감, 죽음의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표현된 타투 메이크업의 추의 미학의 특성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타투 메이크업 역시 미학적 특성을 토대로 표현되어질 수 있으며,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표현과 미적가치의 표현수단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사려 된다.

앞으로 메이크업이 독자적인 조형예술로 더욱 발전함에 따라 타투 메이크업의 특성은 다양한 메이크업의 표현기법으로써 무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더욱이 개성화·다양화 시대와 더불어 타투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타투에 대한 관점 변화 및 인식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타투를 예술의 한 장르로 정착시킴으로서 예술로서 가치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 강경화. (2000). *메이크업 총론*, 서울: APC, p.158
- 강혜원. (2000). *의상사회심리학*. 서울:교문사. p33.
- 김광숙. (2001). 바디아트의 조형적인 이미지에 관한 연구. *인체예술학회지*, 2(1), p.19
- 김덕록. (1997).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 답게. p.21
- 김문환. (1989). *미학의 이해*. 서울:문예출판사
- 김영미. (2005). *현대패션에 나타난 Tattoo Look의 조형성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자. (1998). *김영자의 How to Make-up*. 서울:열두사람.
- 김은정. (2003). 추의 미적 현대성에 대한 철학적 담론-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한국독어독문학회*.
- 김은정. (2004). 추에 대한 철학적 불신-헤겔과 로젠크란츠 미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뷰티학회*. 23
- 김은진. (2003). *문신의 시각적 표현특성에 관한연구-하위문화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 동서대학교 디지털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임정. (2001). *문신에 나타난 상징성과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주. (1979). *문신에 관한 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18(4)
- 김향수. (2002). *패션에 있어서의 보디페인팅과 타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정은. (2003). *바디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형태 연구-지역특성과 시대 변화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선희, 임영자. (2007). *오뜨꾸뛰르 컬렉션에서 본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2003년 S/S이후 크리스찬 디올을 중심으로-*. *복식*.57(1).
- 변영희. (2003).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醜)이미지에 관한 연구 -색채표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 p.120.

- 선정희, 유태순. (2001). 현대 패션 및 메이크업에 표현된 데카당스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1(7).
- 손향미. (2002). *현대 패션 및 신체장식에 나타난 혼성모방(pastich)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남경, 박숙현. (2007). 태투(Tattoo)와 문신(文身)에 관한 소비자 인지도 및 유래에 나타난 차이점 비교. *의류학회지*. 31(1). pp.114-118
- 스티브, 길버트. (2000). *Tattoo History*. 이순호 옮김(2004). *문신, 금지된 패션의 역사*. 서울:르네상스.
- 안선경, 양숙희(1995) 현대복식에 표현된 추(醜)의 개념 -1980년대 중반부터 1994년까지를 중심으로-. *복식*. 19(2), p.5
- 오세원. (1983). 문신, 자해흔, 담뱃불 지짐에 대한 장병들의 태도. *신경정신의학* 22(2)
- 오정은, 박숙현. (2005).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플라쥬 형태 및 표현특성 연구 -1990년대 중반 이후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복식*. 55(6).
- 오정희(2005). *패션쇼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메이크업 연구:90년대 이후 패션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p.12
- 윤순향. (1985). *Karl Rosenkranz에 있어서의 「추의 미학」 연구*. 홍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윤순향. (1985). *Karl Rosenkranz에 있어서의 「추의 미학」 연구*. 홍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7-66
- 윤정혜. (1999).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타투류*.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순분. (2004). *대중문화의 새로운 코드로서의 문신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 (2002). *20세기에 나타난 에로틱(Erotic) 메이크업의 특성*. 국민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자. (1998). *복식사회심리학*. 서울:수학사. p49.
- 이현주. (2006). *타투(Tattoo)미학의 타자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 (2006). *타투(Tattoo)미학의 타자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

- 이효진. (1999).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TATTOO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4), 52-68.
- 장미숙, 양숙희. (1999).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1990년대 후반 캣워크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7(3), pp.83-84
- 조현설. (2003). *문신의 역사*. 서울:살림. p.55
- 조현설. (2003). *문신의 역사*. 서울:살림. pp.57-58
- 최미라. (2004).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추(醜)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피종호. (2005). *해체미학*. 서울: 뿌리와이파리.
- 홍지현. (2003).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문신 유형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lanch Payne. (1965). *History of Costume*. New York : Happer & Publishers. p.31.
- Govermar,A.B. (1984). *Issues in the Documentation of Tattooing in the Western World*. Diss. U of Texas at Dollas,9
- G.W.F.Hegel, 두해숙 옮김. (1996), 나남출판
- Helen Reynolds. (2003). *A fashionable History of Makeup & Body Decoration*. Chicago: Raintree
- Henk Schiffmacher, Burkhard Riemschneider.(2001). *1000 Tattoos*, Köln:Tas-chen
<http://www.foxykorea.com>(2007, 5월 6일)
<http://www.taegutatattoo.co.kr>(2007, 5월 6일)
- K.해리스.The meaning of Modern Art. 오병남, 최연희 옮김. (1988). *현대미술-그 철학적 의미-*. 서울:서광사
- Karl Rosenkranz. (1996). *Ästhetik des Häßlichen*, Leipzig. p.11
- Karl Rosenkranz. (1996). *Ästhetik des Häßlichen*, Leipzig. p.14.
- Karl Rosenkranz. (1996). *Ästhetik des Häßlichen*, Leipzig. p.15
- Karl Rosenkranz. (1996). *Ästhetik des Häßlichen*, Leipzig. p.40
- Karl Rosenkranz. (1996). *Ästhetik des Häßlichen*, Leipzig. p.91.
- M.S.까간.Vorlesungen zur marxistisch-leninistischen Ästhetik. 진중권 옮김 (1989). *미학강의I*. 서울:새길.
- Ted Polhemus. (1994). *Street style*. New York: Thames and Hudson. p.13.

Theoder W.Adorono, 홍승용 역. (1984). *미학이론*, 서울:문학과 지성사. pp.82-89

春山行父. (1976). *おしいゆわの文化史*. 東京:平凡社. pp.12-13.



ABSTRACT

Aesthetics of Ugliness of Tattoo Make-up in Modern Fashion

Sun Hye-Mi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Jang Ae-R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chance to change viewpoints and awareness of tattoos through makeup as images of ugliness have stood out and spread gradually since the end of the last century. For the purpose, this paper sought to define tattoo makeup which is used as a means of artistic expression of makeup expressed in modern fashion, and to examine its meaning.

Representative images of ugliness in makeup of modern fashion can be found in makeup of goths who appeared after hippies and punks. Since the gothic makeup pursued expression of scary images using tattoos, the makeup can be said to represent the ugliness images of modern fashion.

Thus, in this study concepts, expression techniques, and meaning of tattoos were considered to examine the ugliness images from aesthetic perspectives of tattoos. Then, based on the consideration, a definition of tattoo makeup was established. To make out the images of ugliness in tattoo makeup, concepts of a lack of structure, incorrectness, and deformity were borrowed from the Aesthetics of Ugliness proposed by Karl Rosenkranz, and they were coded. Based on the coded meaning,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attoo makeup were inferred as beauty of formlessness, beauty of imperfection, and beauty of

heterogeneity.

In terms of the beauty of formlessness, unnaturalness and contradiction are expressed by violating regular rules: left–right asymmetric expression; sexless or bisexual expression through introduction of heterogeneous elements; and partial expansion or ignorance of area. In addition, it codes aesthetic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avant–garde and humorous ways through transposition and unexpected arrangement of colors.

The beauty of imperfection of tattoo makeup is expressed with discretionary and vague abstract shapes by restricting, reducing, and omitting colors. Unstructured shapes and exaggeration or concealment of colors are used to express a decadent tendency and a future–oriented tendency. The beauty of imperfection is also expressed as characteristics of a beauty of emptiness and imperfection through imperfect abstract shapes of geometrical and abstract patterns. Moreover, vagueness and imperfection are seen through collage technique with heterogeneous materials, and dismantlement from the inside and artistic imperfection are expressed through mixture and borrowing of heterogeneous modes and images. These artistic characteristics are coded as the beauty of imperfection.

When it comes to the beauty of heterogeneity, as the gothic makeup shows, death and demonic moods are expressed by using cool colors. In addition, transposition and imitation of positions are used to express deconstruction, decentering and unsoundness. By using artificial and stimulative primary colors and artificial ornaments, destruction and depravity of orders, and a decadent tendency are expressed. Moreover, by expressing inhuman atmospheres through abnormal transformation of human bodies which ignores structure and balance, amusement, unexpectation, sardonic pains, senses of fear and hatred, and the nature of death are expressed. These expressions are coded into the beauty of heterogeneity.

Given the above–stated findings, tattoo makeup is makeup technique, which provides a chance to develop makeup into independent formative arts in the age

of individuality and diversity. It is considered that it will provide infinite ideas and contribute to valuing tattoos itself as a genre of arts.

Key Words: Tattoo Makeup, Aesthetics of Ugliness, Karl Rosenkranz, beauty of formlessness, beauty of imperfection, beauty of heterogeneity



감사의 글

본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자신감과 막연한 마음들이 지금은 아쉬움으로 더 많이 남습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많은 노력과 공부가 필요로 했음을 느끼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 옆에서 논문에 대한 많은 조언과 사랑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지도해주신 장애란 교수님께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의 논문에 대한 의견과 저의 부족한 점을 꼼꼼히 지적해주셔서 좀 더 높은 완성도를 가진 논문 쓰게 해주신 이진용 교수님, 황선순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는 동안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권숙희 교수님, 대학원 선배님과 후배님, 그리고 우리 학과사무실 식구들인 해진언니, 지숙언니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는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를 말없이 응원해주시고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저희 가족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게 해준 저의 하나밖에 없는 이모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논문을 쓰는 동안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준 소울메이트에게도 논문을 마무리하는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2007년 8월
선혜미 드림